

# “예산 낭비되는 일 없도록”

### 김희수 의원, 도내 지역축제 내실화 방안 마련 촉구



도내 각 지역 축제가 진정 주민화합과 애乡심 고취 그리고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은 제368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각 지역 축제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도와 도내 시군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는 잦은 태풍으로 인해 도내 각 지역 축제는 많은 혼란을 빚었다”면서 “특히, 9월에 발생한 태풍 링링으로 인해 장수의 대표축제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취소됐고, 10월 초에 발생한 태풍 미타의 영향으로 도내 많은 주요축제가 행사를 연기됐다”고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김희수 의원은 “자연현상에 기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가 특정 시기에 집중된 축제 기간 또한 한 몫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축제나 행사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이지만, 같은 기간 적게는 2개의 축제가 많게는 7개의 축제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주요축제 60개 중 41개는 기간이 같거나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9·10월에만 무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무려 21개의 축제가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었으며, 축제가 가장 많은 달은 10월로 13개의 축제가 11개 지역에서 개최됐고, 다음 순으로는 5월 11개 축제가 9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어 특정시기로 치중됐다.

이는 주요축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양한 단체들이 주최하는 소규모 축제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올해 도내 전체 축제 예산이 273억원이며, 이 중 시·군·비는 199억원, 도비는 32억이 넘는다”면서 “많은 축제들이 전통성과 예술성을 찾기

어렵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고 질타했다. 이어 “축제는 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지역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객 유치로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개발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철저한 준비나 기획없이 의욕만 앞세운 부실한 운영으로 축제를 찾은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외면받아 낭비되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은 “도가 토탈관공을 추구한다면 현재 주요축제는 물론 도내 각 지역의 모든 축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축제를 통합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제들이 지역문화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진정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은 “축제는 선별하고 그렇지 못한 축제는 과감히 도비지원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 김종식 도의원, 도내 보리 소비촉진 종합대책 마련 촉구

도내 농업의 안정과 도민 건강 그리고 향후 유산지 식량안보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보리 소비를 촉진시키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자는 대정부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지난 8일 제368회 정례회에서 건의안을 통해 “보리는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유산지 관리로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라면서 “특히, 생태계의 유지와 보전에 유용한 작물, 아울러,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보리의 영양학적 우수성이 밝혀지고 있어 정부가 보리 소비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리가 과잉생산되면서 보리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농가소득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지난해에도 평년보다 많은 수확량으로 계약재배 물량 이상의 주정용 보리가 주류업계에 쌓여 있는 상황에 수요를 넘어 남아도는 보리에 대한 처리 방안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는 “정부는 향후 과잉생산이 지속될 경우 추가 가격인하는 물론이고 계약재배 물량 조정을 통해 생산량 감소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

를 냈다. 김종식 의원은 대정부 보리 소비촉진 종합대책으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보리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리가 보다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과 군대 등에서 보리를 적극적으로 식용하는 등의 국민적 인식의 패러다임 변화 방안 마련, 보리 소비촉진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능성 품종 육성 및 용도별 적합 품종개발을 위한 적극적 연구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연계형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의 보리 소비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농업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과 지원대책을 수립 등을 제시했다. /김진성 기자

### 靑 NSC, 상임위 열어 금강산 관광 상황 점검

지난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

상임위원들은 금강산 관광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및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오는 15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상임위는 “동해의 시 한미동맹이 굳건한 신뢰의 바탕 위에 상호 호혜적 동맹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상임위는 “동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아세안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 농업인의 날 행사. 지난 8일 도청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2019년 전북 농업인의 날 행사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삼색기래퍼 커팅을 하고 있다.

## 나기학 의원, “새만금 신항만 10만톤 규모로 확장해야”



전북도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만 10만톤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산업 경제위원회 나기학 의원(군산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제36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을 10만톤 규모로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1일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 본계획(2019~2040)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당초 2023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1단계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2단계 사업은 2030년에서 2040년까지 연장했다.

또한 부두규모는 2~3만톤 18선석에서 5만톤급 9선석으로 확대하고 수심은 12m에서 14m로, 항만배후부지도 114만 2000㎡에서 388만㎡로 대폭 확대된 상태이다.

총사업비 또한 당초 2조6,186억원에서 3조2447억원으로 6291억원이 증가했고, 특히 당초 민자로 계획된 1단계 부두 2선석의 재원이 국가 재정으로 변경되면서 2170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이처럼 정부에서 확정된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해졌고 항만 규모가 미약하나마 확대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나 의원은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동해항 석탄부두 규모가 10만톤급”이고 “부산외항을 비롯해 인천, 광복, 광양 등 항만 역시 5만톤

급에서 10만톤급 나아가 20만톤급으로 건설·운영되고 있는 추세이다”며 새만금 신항만도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덧붙여, “새만금 신항만은 중국 등 동북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수출입이 용이하도록 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조성”하고, “나아가 해양관광, 레저기능을 포함한 서해안 복합거점 항만으로 건설할 계획”이라며 새만금 신항만 10만톤급 조성 당위성을 언급했다.

나기학 의원은 “5만톤급 새만금 신항만으로는 새만금의 미래를 담기엔 그릇이 너무 작다”며, “새만금 신항만을 204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 적어도 10만톤급 규모로 조성해 20만톤급 이상의 접안이 가능한 항구로 조성해 국제항만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 김광수 의원, 교육환경 개선 특고세 32억 8900만원 확보



전주신흥고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전주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고세에 총 32억 8,900만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북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을 활발히 해나감에 따라 교육부를 상대로 교육환경

개선 및 문화체육 활동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육현안사업 해결에 매진한 끝에 교육부 특고세를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세는 △전주 신흥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 15억 800만원 △전주 지곡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사업 3억 4,600만원 △전주 전북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 14억 3,500만원 등 총 32억 8,900만원이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감사와 예산활동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전주시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에도 주력했다”며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끈질긴 설득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교육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전주 신흥고등학교와 전북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신축되고, 지곡초등학교에 특별교실이 증축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만큼 교육환경 개선과 문화체육 활동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아울러 지역수업사업 해결에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 고창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